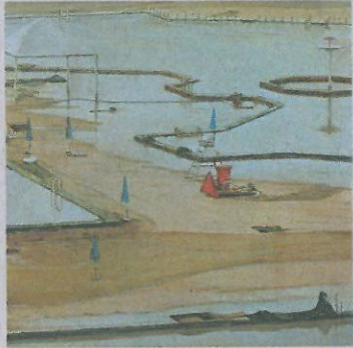


2013. 6. 17

국제갤러리(주)



'여름의 끝'

스산하고 메마른 한강 풍경

노충현 국제갤러리 개인전

그는 조금씩 더딘 삶을 살았다. 남들보다 한 살 늦은 아홉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미대(홍익대)에 진학한 것도 서울시립대를 2~3년 다니다 다시 들어갔다. 대학 졸업 후 웹디자인과 무대예술, 영화 쪽 일을 전전하다 2000년대 중반에서야 전업작가의 길로 돌아섰다.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중견 작가 노충현(43) 이야기다.

2007년 국제갤러리에서 문성식이광호와 3인전을 한 그가 세 명 중 가장 늦게 같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다소 더딘 그의 DNA 때문인지 이번 전시도 1년 정도 늦춰졌다.

그는 감정 과잉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의 풍경 그림은 들뜬 느낌이 전혀 없다. 가라앉고 또 가라앉은 내면의 풍경은 스산하고 메마른 풍경이다. 그래서 전시 제목도 '살풍경'. 2005년부터 그는 내면의 쓸쓸한 풍경이자 살벌한 풍경을 '살풍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왔다. 풍경 앞에 놓인 '살'은 죽일 살(殺)이라는 뜻이다.

그가 그리는 풍경은 다소 이국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합정역 부근 한강시민공원과 뚝섬 지구를 주로 배경으로 그렸다. 여름에는 북적이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지면 한없이 한적한 곳이다.

그는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토대로 유화 작업을 한다. 즉석에서 스케치하는 것보다 일단 사진으로 감정과 톤이 걸러지기 때문이다.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인지 파스텔톤 풍경은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진다. 그는 한때 인물 그림을 그렸으나 어떤 계기로 인해 인물을 그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을 그리더라도 풍경에 아주 자그맣게 묘사돼 있다. 서울 주변부 공간을 모호하고 건조하게 그린 그의 그림이 뚜벅뚜벅 가슴에 들어온다. 전시는 7월 14일까지. (02)735-8449 이향희 기자